

신한금융그룹의 ESG 공시 대응 현황 및 전략
- 공시 전쟁에서 이기는 길 -

신한금융지주회사 ESG기획팀

2023.4.20

1. 신한금융그룹 ESG Milestone

- Shinhan Milestone
- ESG Trend
- 국내 금융사 최초

신한 ESG 1.0

CSR 사회공헌

·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



신한 ESG 2.0

CSV 공유가치창출

· 기업의 ESG 경영 인식 단계
· 환경/사회에 대한 책임 증가



2020

그룹 ESG전략 Framework 수립 - Zero Carbon Drive 선포

· 동아시아 최초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포합 탄소중립 선언

신한은행, 적도원칙 가입 (시중은행 최초)

PCAF(탄소회계금융연합) 국내 최초 가입

- 환경부, K-Taxonomy 도입 발표
- 한국거래소,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공시

2021

GFANZ(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) 산하 이니셔티브 가입

· Net Zero Banking Alliance (창립멤버), 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, Net Zero Insurance Alliance

UNEP FI 리더십위원회의 멤버로 선출 (아시아 유일)

아시아 민간 금융사 유일 COP26 공식초청 및 탄소중립금융 발표

- 금융위원회, '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' 발표 -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
- EU,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(CSRD) 발표

2022

그룹 2025 ESG 중기전략 수립

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/ ESG 평가모형 신설

생물다양성(TNFD, PBAF) 이니셔티브 참여

- IFRS재단, 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공개
- 미국 SEC(증권거래위원회)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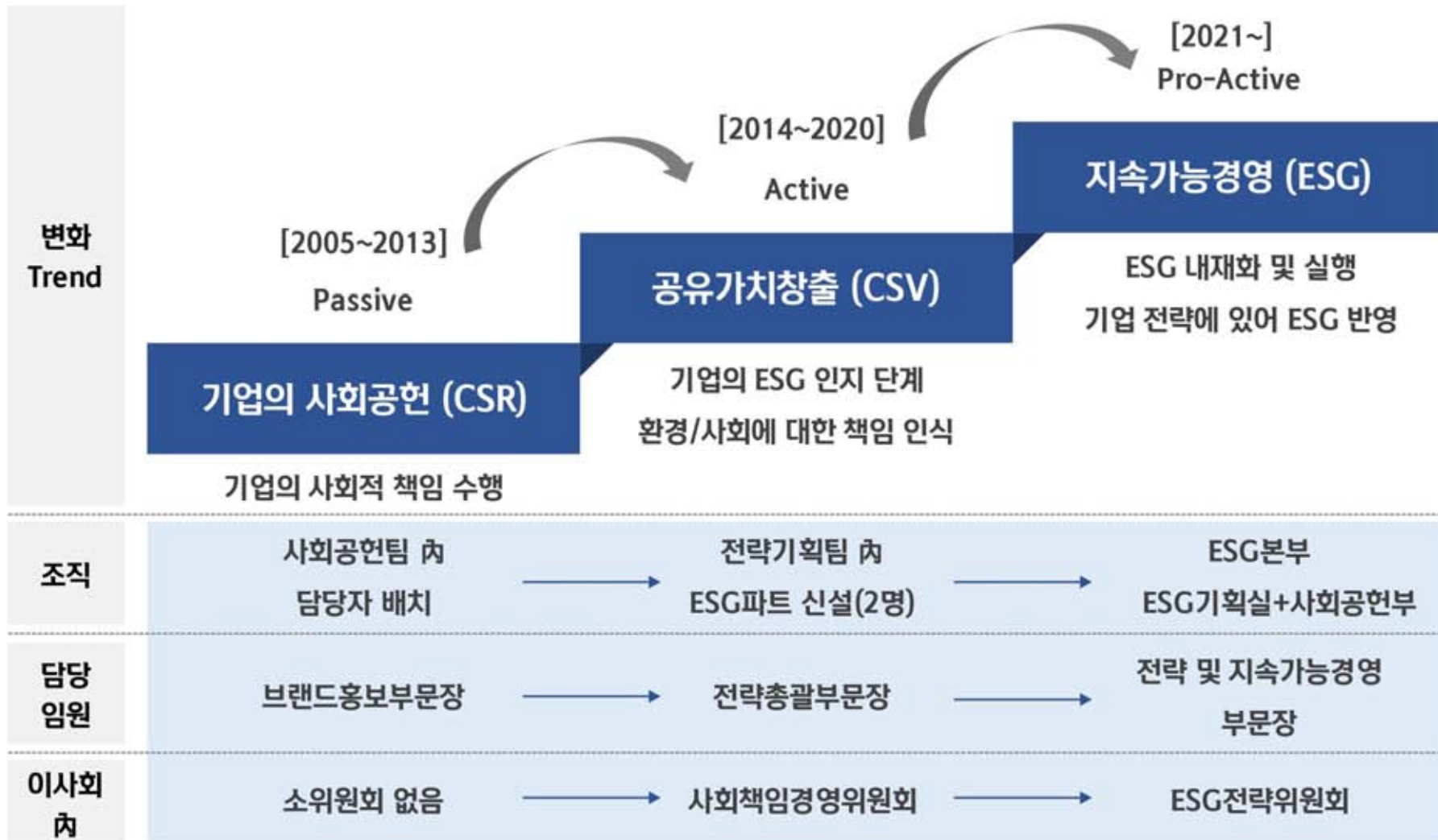
신한 ESG 3.0

ESG 지속가능경영

· 기업의 ESG 내재화 단계
· ESG의 전략 통합, 평가 반영
· 차별화된 ESG 성과 창출

2. ESG 조직

기업의 환경,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뛰어 넘어, 경영에 내재화 하는 ESG단계로 확대



경영진 평가체계에 ESG를 반영하면서 전략이 곧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

그룹 ESG 추진 거버넌스 체계



경영진 KPI

- ▶ 신한은 2018년 그룹 주요 전략과제에 ESG를 반영하는 논의를 통해 2019년 그룹 CEO 뿐 아니라 신한은행 전 그룹사 CEO 대상, ESG 성과를 평가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- ▶ 2022년에는 그룹 CEO의 전략과제 중 ESG 평가비중을 15%로 확대하였으며, ESG 금융 확대와 내부/금융배출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.
- ▶ 그룹사 CEO들의 경우, 그룹사 규모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비중을 차등하였습니다.

3. ESG 공시의 변화

'22년부터 글로벌 ESG공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

신한은 FY24년부터, IFRS*(국제회계기준원)와 SEC(美증권거래위원회)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필요

~2023

자율 (As-is)



TCFD



- 투자자 등 요구에 따라,
기업의 비재무정보(ESG)
공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
글로벌 이니셔티브
(GRI, TCFD, SASB* 등)기반으로

자율적/자발적 정보 공개

*GRI: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,
TCFD: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,
SASB: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

2024~

의무 (To-be)



IFRS

➤ ISSB

(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)
공시 초안 발표
('22.3월)

➤ 이행(예상)시기:
2025년(FY2024)

➤ 최종 공시기준:
'23.2분기 발표
(예정)



➤ SEC (증권거래위원회)
기후 관련 공시
의무화 초안 발표
('22.3월)

➤ 이행(예상)시기:
2025년(FY2024)

➤ 최종 공시기준:
'23.4월 발표
(예정)



➤ '25년 2조 이상
코스피 상장사
의무화 발표
('21.1월)

➤ 이행시기:
2026년(FY2025)

➤ 공시 기준은
ISSB(IFRS) 기준
활용 예상



➤ ESRS
(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)
입안 예정 발표
('21.4월)

➤ 이행시기:
2024년(FY2023)

➤ 최종 공시기준:
'23.1월 발표

공시 기준의 차이

자율

GRI 가이드라인

지속가능성 관련 모든 정보
(완결성 중심)

For 모든 이해관계자

V S

의무

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

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
(중요성 중심)

For 투자자

금융그룹의 어려운 숙제

자율

그룹 운영 전반의 ESG 데이터

Scope1&2 '내부 데이터'

대외 커뮤니케이션

V S

의무

+ 고객의 ESG 데이터 확보

+ Scope3 '금융 자산'

+ 주요 의사결정(여신/투자)에 반영

6. 신한금융그룹의 기후변화 공시 대응

'22년부터 글로벌 ESG공시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
신한은 FY24년부터, IFRS*(국제회계기준원)와 SEC(美증권거래위원회)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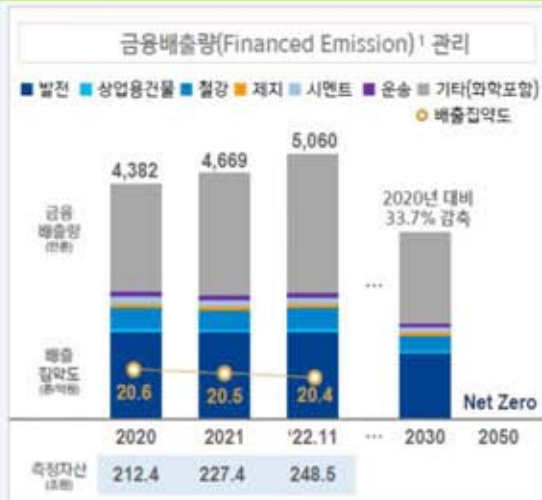
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Framework



지속가능경영 활동 (ESG)



기후변화대응



친환경 금융 확대 및 포트폴리오 전환 통해 금융배출량 감축 기반 마련

- PCAF^{2,3} 가이드라인 기반 탄소 배출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통해 분기별 금융배출량 산출
- 2022년 11월 금융배출량 5,060만톤이며, 여신/투자 1억원당 금융배출량 집약도는 20.4톤
- 그룹 내 자산 측정 범위 지속 확대, 배출 집약도 관리 강화
- 측정 자산: 248.5조원 (전년 대비 +9.3% 증가)
금융배출량: 전년 대비 391만톤 증가, 집약도 0.1 감소



친환경 신사업 및 기업고객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으로 탄소 Net-Zero 지원

- '22년 친환경 금융 신규 누적 실적 2.78조원⁴:
- 녹색대출 1,268십억원 (친환경 PF 831.3십억원)⁵
- 녹색투자 1,516십억원
(투자 부문별 비중: 재생에너지 32%, 친환경 교통 49% 등)

혁신금융



기업고객의 지속가능 성장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/뉴딜금융 지원 확대

- 22년 4Q 혁신대출 실적 25.9조원
- 기술금융(TCB*대출) 19.3조원
- IP/동산담보대출 및 기타 2.0조원
- K-뉴딜대출 실적 3.8조원
- '22년 4Q 혁신투자 실적 1.5조원
- (혁신) 직접투자/프로젝트 펀드 등 0.8조원
- (K-뉴딜) SOC디지털화 투자 등 0.7조원

주1), 2), 3), 4), 5) 공시사항 색선에 별도 기재

* TCB: Technology Credit Bureau

☞ ESG, 리스크, 회계 부문의 역량을 통합, 연계하여 대응하여야 할 사안

ESG 의무 공시

- [정기 공시]
사업보고서 內 연1회(3월말)
- 투자자 대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
- ▶ 이행 위한 신규 역량 및 체계 필요

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기업				(단위 : 백만원)
과 목	제21기 (2021.12.31)	제20기 (2020.12.31)	제19기 (2019.12.31)	
자 산				
I. 현금 및 상각후원가측정액자산	28,453,404	33,410,542	28,423,744	
II. 당기손익-공통가치측정금류자산	62,403,759	59,091,403	53,163,143	
III. 파생상품자산	3,799,189	5,633,915	2,829,274	
IV. 기타포괄손익-공통가치측정유가증권	64,638,323	58,316,112	56,301,050	
V. 상각후원가측정다올채권	49,930,076	47,282,623	45,582,065	
VI. 상각후원가측정다올채권	389,137,154	356,221,519	323,244,979	
VII. 유형자산	4			
VIII. 무형자산	5			
IX.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	2			
X. 담기법만체자산				
XI. 연결회계비자산				
XII. 투자부동산				
XIII. 순이익잉여자산				
XIV. 기타 자산	35			
XV. 배극외항 자산				
자산 총계	648			
부 채				
I. 대주부채	364			
II. 단기손익-공통가치측정금류부채	1			
III. 단기손익-공통가치측정지정공공부채	8			
IV. 파생상품부채	3			

0022-0466/96/0000-0000\$05.00/0



1. **ESG전반**
 - 기업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 평가 및 전략 반영
2. **리스크관리**
 - ESG가 기업의 위험/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및 시나리오 분석
3. **회계/재무**
 - 해당 영향 및 분석을 재무제표에 반영 및 예상

8. ESG 공시 관련 대응 전략 - ② 시스템 기반 구축

그룹 ESG Data 플랫폼 구축을 '23.5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이며,
향후 **ESG 공시 자동화 단계의 초석으로 삼고 조직 내 활용도를 확대**하고자 함

추진 프로젝트			
단계	Phase1 (2022~23)	Phase2 (2023~24)	Phase3 (2025~)
수준	ESG Data 구조화	ESG Data 자동 수집	ESG 공시 자동화
구성	• 기존 보고서 및 평가 대응 Data 기반 시스템 구축 - ESG보고서, 녹색경영, 투자자/평가기관 요구 data • 소그룹사 시스템 활용 확대 - ESG data 유관 부서 협업 • 그룹 홈페이지 연결 자동 공시 - ESG Dash board - 지주 홈페이지 연동/공시	• 내/외부 ESG Data 자동화 - 내부 시스템 연계, ESG data 자동 적재 - 환경 data (전력, 용수 등) 외부 공개 자동화 • 그룹 금융배출량 시스템 연계 - 기후변화 대응 수준 반영 - 금융배출량/시나리오 활용, 재무적 영향도 등 자동 분석	• ESG 공시 및 평가 대응 자동화 - 공시 및 평가 대응 관련 요구 Data 자동 추출 • 재무 시스템과 연결 확대 - 축적된 ESG data 기반 재무적 영향도 자체 분석 - 사업보고서 등을 통한 ESG 기반 재무 보고 추진 (TCFD, ISSB 등)

※ 단계별 추진 Phase 시점은 ESG 공시 표준 확정 및 적용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

8. ESG 공시 관련 대응 전략 - ③ 재무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정교화

미래 기후시나리오 기반 GDP 등 변수와 탄소비용 등을 반영하여
기업의 조정재무제표를 산출하고 변경된 재무제표에 기반한 신용등급 변동 파악

분석 방법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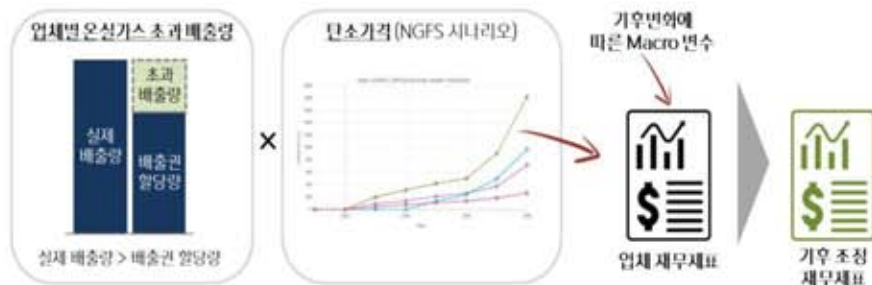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행 분석 결과 및 NGFS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미래 시점 기업의 재무 정보를 예측하고, 탄소배출비용을 영업비용을 추가 반영하여 신용등급 변동을 파악
- ☞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, 탄소 가격(배출권, 탄소세 등)을 곱하여 탄소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영업 비용에 반영
- * NGFS 시나리오 상 한국GDP, 탄소가격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자산, 수입 및 비용 등을 추정

한계점

- ✓ **업권별 차별적인 수요/공급변화 반영 미흡**
 - 에너지, 화석연료 관련 업권 등의 수요/공급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성장 수준이 동일하게 반영
- ✓ **개별업체의 대응 수준,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미반영**
 - 온실가스 저감 기술 수준 및 경쟁력,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등 업체별 차별적 대응 수준은 미반영

향후 개선 필요사항

[現 이행리스크 분석 방법(개념도)]



- ✓ **외부 분석 모형 벤치마크, 내부 검토 등을 통한 분석 모형 지속 정교화 추진**
 -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분석 방법 적용 등
- ✓ **내부 시나리오 모형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한 분석**
 - 국가 계획 등에 따라 시점별 변동 가능한 변수 적용 등

*'21년 ESG보고서 상의 이행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은 한국은행 분석 결과를 활용한 Top-down 분석과 S&P의 CCA(Climate Credit Analysis)를 활용한 Bottom-up 분석 결과를 공시

8. ESG 공시 관련 대응 전략 - ④ 기후 관련 금융 기회 확대

고탄소 기업들의 이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**전환금융 정책 마련 및 확대**

탄소배출 감축 규제 강화 지속으로 고탄소 배출 기업 비용 부담 ↑

-  - 역내 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 최종 합의('22.12월)
→ 최종안은 기존 대비 규제 수준 高
-  - 바이든 대통령, 과거 파리협정 탈퇴 사과.
'3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 달성 천명('22.11월)

→ EU, 美 규제 본격화시 국내 **주요 업종 이익 급감** (철강 10%, 석유화학 5% 이상 하락)

고탄소배출 섹터 자금수요 확대로 익스포저 관리 중요성 ↑

* 상장사 유동부채 증가율 ('22.3Q, yoy)



(Fnguide)

금융회사 포트폴리오 내 그린워싱 기업 배제 책임 ↑

-  - 美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골드만삭스에 400만달러 과징금 부과
-  - 탄소 저감에 앞장선다고 과대광고한 RBC 은행에 대해 캐나다 경쟁국의 조사 진행중

→ 美, 유럽 등 각국 그린워싱 규제 확대
→ 韓 금융당국, 그린워싱 방지 위한 ESG 채권평가 가이드라인 제작('23.1월)

☞ 포트폴리오 내 고탄소배출 기업 비중 축소, 그린워싱 배제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**Key Factor** 도출

- 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축 체계화를 위한 3가지 Key Factor | 1 | Seg.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및 금융지원 기준 정교화 | } 고탄소기업 비중 축소, 그린워싱 배제 |
| | 2 | 친환경 전환 자금수요 발굴 및 상품·솔루션 고도화 | |
| | 3 | 친환경 인프라 투자 수요 및 관련 기술 주목 | } 환경 친화적 수익기반 확대 |

Do the Right Thing

for a Wonderful World

고맙습니다 😊